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개관

전주시, 신산업분야 기업 집중 육성 등 지역 ICT 산업 요람·디지털 산업 거점공간으로 운영

찬란했던 후백제의 영광이 숨쉬는 역사의 현장에서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요람이 될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4일 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야외마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섭 문경위 위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37억 원 등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9200㎡ 규모로 건립됐다. 총 29개 입주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 등 기업지원시설과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시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지역 ICT 산업의 요람이자 디지털 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입주기업 1차 모집 과정을 거쳐 선정된 17개 기업이 이달 중순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 건립 과정에 진행된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로 후백제 궁성지와 관련된 해자(성 주위에 둘러싼 관못)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센터



전주시는 24일 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야외마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섭 문경위 위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건물 내에 후백제 역사의 상징적 공간인 (가칭)후백제기념관이 조성 중이다.

시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에 후백제기념관을 조성해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자들에게 문화산업의 융복합 다양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노송동 옛 안기부 부지에 지역 ICT기업 육성을 위

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왔다. 현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는 △IT 벤처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개관하면서 이곳이 전북지역 신산업을 이끌 IT집적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찬란했던 후백

제의 영광이 살아 숨쉬는 신성장동력 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이제 미래 전주의 먹거리를 책임질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디지털산업을 이끌어 갈 시설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전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후백제 관련 기념관을 남겨 역사와 문화, 신산업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24일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거나 채용하기로 한 12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12개 기업과 협력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가 24일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거나 채용하기로 한 12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체결한 여성친화기업은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 △공천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 △은혜노인복지센터 △유한회사 디파크 △더맵판한주간보호센터 △다드림노인복지센터 △열매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해산 △제논전정(주) △농업회사법인 (주)디자인농부 △(유)마중길전주관광호텔 꽃심 △남부재가복지센터 등이다.

이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여성인력적극채용 △일·가정양립이 가능

한 제도 도입 △고용차별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2011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전주시 소재 263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출산·육아·가사 등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여성의 취업 및 경력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2-2352~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미국 뉴올리언스·시애틀과 문화·관광 교류 강화

전주시, 박형배 부시장 등 방문단 미국 순방 주요사업 현황 소개·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 논의

전주시가 미국 주요 도시와 문화·관광 교류 강화에 나섰다.

시는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등 전주대표단이 19~24일 문화관광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뉴올리언스와 찰다산업 문화콘텐츠투를 육성 중인 시애틀 등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미국 방문은 시가 지난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성공적인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대표단은 시애틀의 벨뷰시청을 방문해 제러드 니우웬huis(Jared Nieuwenhuis) 부시장을 만나 미래산업의 트렌드와 글로벌기업의 혁신비전을 배우는 한편, 전주시의 주요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와는 관광객 유치 등을 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다져온 뉴올리언스에서는 라토야 칸트렐(LaToya Cantrell) 시장을 만나 우의를 다졌다.

특히 재즈의 도시로 잘 알려진 뉴올리언스와 재즈·문화·관광 분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미국 순방은 관광거점도시 전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해외에 홍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서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시애틀 등의 산업분야 트렌드 등 우리시 관광 및 기업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등 전주대표단이 19~24일 문화관광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뉴올리언스와 찰다산업 문화콘텐츠투를 육성 중인 시애틀 등을 방문했다.

'한옥형 케이블카 설치... 관광권역 확대'

민주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한옥형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약속했다.

우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중역 인근에서 시작해 아중호수, 기린봉,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2.7km 코스의 케이블카(가칭 레이크 워크)를 가설, 한옥마을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창작·교류 지원'

국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교류를 지원할 문화예술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정책발표를 통해 "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투자가 적었다"면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전주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을 언급했다. 그는 "전주는 천년고도로써 소리꾼



과 음악인, 미술가, 문학인 등 전국을 누비는 자랑스런 문화예술인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고장"이라며 "경제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이 살아야 전주가 살아난다"면서 "전주문화예술인회관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성장가능한 신진문화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예술계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면서 "일회성 행사보다 정례화된 콘텐트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덕진구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민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

이라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종전 대비 3배(12만 원)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올해 들어 현재

까지 2000여 건이 단속되는 등 불법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덕진구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이동식 단속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소방도로 불법주정차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신도시 상업지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최현창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사고위험 없이 뛰어다닐며 통학안전 걱정을 하지 않는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책의 도시' 전주 기념상품 개발 공모

6월 15일까지 전주도서관 BI 활용 전주만의 특징 담아

전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전주도서관 BI를 활용해 '책의 도시' 전주의 특징을 담은 기념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책의 도시 전주를 구성하고 있는 전주의 문화와 이미지, 다양한 전주도서관의 특징을 통해 책의 도시 전주만의 특색있는 기념상품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전주의 청년작가 및 공방과 공동으로 협업한 지역서점이 응모 가능하다.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전주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응모 방법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뒤 첨부된 서류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sd7738@korea.kr)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책문화산업팀(063-230-1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의 청년작가와 지역서점의 협업으로 더 많은 지역의 청년작가들을 발굴해내고, 도서관과 동네책방, 지역서점 등 책의 도시 전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가동

전주시 덕진구, 재해예방 시설물 선제 점검·보강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달부터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예방 시설물에 대한 선제 점검과 보강에 나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일 해당 과장과 팀장,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단계별 임무와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10월까지 5개 월간 재난 사전대비와 상황관리,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 상황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등 급경사지의 배수상태와 균열

발생, 배수문과 배수펌프장 작동 상황, 유수지장물 방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온고로 일원 등 삼습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침수와 물고임 등 민원 대발지역은 우수받이를 만들기로 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지역과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선제적 재난재해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